

AI 업무 징징징

임도형

임도형

학부 전자공학, 대학원 인지과학(신경망, 패턴인식, 컴퓨터비전)

10여년간 AI가 아닌 SW개발(개발문화, 삽질금지)

올해 Exem 입사. AI팀.

SW개발이 쉬웠다

- 결과를 알 수 없는 진행
- 망신 필요
- 정기적인 보고 스트레스

정리되지 않은 코드들

- 일반 SW처럼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커밋의 라이프사이클이 아니다.
- 시도 -> 결과 보기 -> 고민 -> 시도 -> 결과 -> 고민
- 완료(commit)의 경계가 애매

실행 시킨 결과까지 긴 간격

- 결과가 나오기 까지 짧으면 몇 분, 길면 몇 시간.
- 그 시간 동안 다른것 하기도 그렇고, 물론 손 때고 있기도 그렇고.
- 새로운 아이디어 있다 해도 별개로 진행하기도 그렇고.
- 목금이면 2일간 실행시킬 것 준비.

허풍에 대한 두려움

- 새로운 것 계속 나오고
- 잘하는 사람 엄청 많고
- 무언가 아는척 하면 진행하고 허풍도 떨고
- 본 실력 드러날까 두려움

외롭다

- 무언가 붕 떠있는 생각들
- 최소한 입 밖으로 나오면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될 텐데
- 무언가 진척되도 말할 곳 없고
- 막혀도 세세하게 말할 곳 없고

공부할 수 없는 업무 시간

- 연구가 목적인 아닌 곳에선 결과를 보여야 한다.
- 진득히 논문 깊이 들여다 볼 여유가 없다.
- 업무 하면서 별개로 공부하는게 당연?

아는만큼 보이는데

- 쏟아져 나오는 아티클들
- 역량의 한계는 아는 만큼

자료 쓰나미

- 엄청난 속도로 자료가 밀려온다.
- TO_READ 리스트 포기
- 웬만하면 facebook tensorflow-kr 안가려고

논문보다 빠른 결과

실험 결과가 먼저 공개된다.

소스 코드와 함께.

그리고 논문 발표는 이후에.

데이터의 부재

- 쌓여는 있지만, 쌓여만 있다.
- 정재하고 추리고 하는데 대부분.
- 특히 레이블링 데이터는 거의 없다.

느껴지지 않는 데이터

- 큰 덩이의 무언가가 있는데
- 보이진 않고, 더듬기도 어렵고
- 결과가 나와도 평가하기도 어렵고

AI고민 없이 AI업무?

- 대부분은 데이터 가지고 끙끙

DNN과 지능

음성을 인식하고 대답을 한다.

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.

지능일까?

새로운 테스트의 필요성?

뭔가 해도 허무

- 2개월 전 어떤 문제로 끔끔
- 해결하고 논문 작성하고 보니, 너무 당연... 간단...
- 논문 가치도 없는 것 같고.

실천하라

"practice, practice, practice and do the dirty work"